

## 세대 간 돌봄이 성인 자녀와 부모 간의 지리적 근접성에 미치는 영향

유재언\*

### 초 록

사회적인 돌봄 지원이 부족하여 가족이 그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중·노년기 부모는 자신의 성인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거나 성인 자녀를 돌봐주어야 할 때 세대 간 동거를 시작하거나 근거리로 이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세대 간 돌봄의 양방향성에 대한 고려가 적었고, 이러한 가족돌봄 필요가 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자녀와 동거는 하지 않으면서 인접한 곳으로 이사하는 거주지 변화를 주제로 한 한국에서의 실증연구는 더욱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 1~4차년도 자료의 15,118 중고령 부모-성인 자녀 자료를 활용하여 (손)자녀 출생, 손자녀 돌봄, 중고령 부모의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DL: IADL)이 성인 자녀와의 동거 시작과 근접한 곳으로의 거주지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고령 부모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을 때 성인 자녀와 동거를 시작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반면, 중고령 부모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을 때는 자녀의 근거리로 이주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또한 손자녀가 출생하거나 어린 손자녀를 돌볼 때, 중고령 부모는 성인 자녀와 동거를 시작하거나 근거리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이동이 세대 간 돌봄 필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족 정책이 돌봄(보육과 장기요양), 인구, 주거정책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과 아울러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는 돌봄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함의를 가진다.

**주제어 :** 가족, 인구이동, 세대, 주거, 손자녀돌봄, 노인돌봄

\* 아이오와주립대 박사 졸업예정 (jjagjjag@naver.com)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이 늘어나고, 성인 자녀와 동거를 하거나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중고령 부모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14년 전국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정경희 외, 2014), 노인의 약 1/3이 자녀들과 동거를 하였고(이삼식·최효잔·윤희식, 2015), 30%는 한 명 이상의 자녀와 30분 이내의 거리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최희정, 2016). 부모와 자녀가 동거를 하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거주할수록 둘 사이의 돌봄(Bengtson, 2001)이 빈번해지고, 더욱 친밀해지며(Bucx et al., 2008), 가족들의 복지(well-being)도 향상된다(남보람·최희정, 2016; van der Pers, Mulder, & Steverink, 2015).

가족학에서 구조적 결속도(structural solidarity)라고도 부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지리적 근접성은 이처럼 돌봄제공자와 돌봄수혜자 간의 정서적 관계를 이해하고 가족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동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이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적다(최희정·민주홍, 2015; Bianchi, McGarry, & Seltzer, 2010; Kahn, Goldscheider, & García-Mangano, 2013). 근거리에 거주하는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의 특성은 한 가구에 사는 이들의 특성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제는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가 인근에 거주하게 되는 영향요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에서 과거에는 중고령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돌봄을 받기 위해서 동거하거나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었지만(Coleman & Ganong, 2008; Stuifbergen, Van Delden, & Dykstra, 2008), 전 세계적으로 손자녀 돌봄제공자로서 역할을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Bengtson, 2001; Chen, 2005; Lsengard & Szydlik, 2012). 특히 한국에서는 사회적 돌봄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 자녀가 출산을 하면, 중고

령 부모가 갓 태어난 손자녀를 돌봐주는 역할을 넘어서 산모의 산후조리와 가사도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즉, 중고령 부모는 돌봄수혜자로서 성인 자녀와 동거하거나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들 간의 지리적 근접성은 성인 자녀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까워질 수 있다(남보람·최희정, 2016). 그러므로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중에서 한 세대가 나머지 한 세대를 일방적으로 돌본다는 관점을 넘어, 본 연구에서는 두 세대 모두 다른 한 세대의 돌봄 필요에 따라서 돌봄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양방향적인 관점을 가진다.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의 동거나 지리적 근접성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횡단적인(cross-sectional) 분석방법을 사용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었다(최희정·남보람, 2016; Chen, 2005; Hank, 2007). 또한 오래전부터 함께 살거나 근거리에 살던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는, 장거리에 살다가 이사를 해서 동거를 시작하거나 인근에 살기 시작한 이들과 구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거 시작이나 근거리로의 지리적 근접성 변화에 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고, 거의 현재의 동거 여부나 지리적 근접성만을 분석하였다(Compton & Pollak, 200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인(longitudinal)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역인과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거 시작과 지리적 근접성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표할 수 있는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 자녀의 (손)자녀 출산, 중고령 부모의 손자녀 돌봄 제공,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제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제한이 동거 시작과 근거리로의 주거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로짓모형 분석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동거와 더불어 대안적인 주거 방식인 근거리 거주까지 구조적 결속도를 확대하여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세대 간 돌봄이라는 가족정책에서 논의되어 오던 주제가 범위가 인구이동과 주거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가족정책에서 다루어야 하는 정책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무엇보다, 따

로 살던 가족들이 세대 간 돌봄을 위하여 거주지까지 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가족들이 가진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회적 돌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설정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세대 간 돌봄 필요에 따라서 중년기 부모-성인 자녀 간 동거 시작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연구문제 2) 세대 간 돌봄 필요에 따라서 중년기 부모-성인 자녀 간 근거리의 주거 이동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 2. 사회교환이론에 근거한 부모-자녀 관계

사회구성원들 간의 교환 관계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사회교환이론은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돌봄과 주거 이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복리를 최대화시키려고 하므로 자신에게 발생한 자원이나 욕구의 결핍을 타인으로부터 충족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서비스와 재화를 교환한다(White, Klein, & Martin, 2015). 한국에서는 영유아 보육·교육과 노인장기요양의 사회서비스가 아직 충분히 신뢰받고 선호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한 세대에게 경제·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나머지 한 세대로부터 도움을 받는 교환이 빈번해진다(최인희 외, 2014; 최인희 외, 2016; Schmertmann et al., 2000; Choi, 2003; Efron & Liu, 2004; Hank, 2007; Compton & Pollak, 2009). 한 세대에게 돌봄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나머지 세대가 단지 경제적인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돌봄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교환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동거도 사회교환이론을 따른다면, 세대 간 동거는 이들이 가진 사회경제적 특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Efron & Liu, 2004; Hank, 2007). 선행연구들은 연로하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고, 경제활동은 하지 않는데, 자녀수가 많은 부모일수록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를 보고하여(최희정·남보람, 2016; 최희정, 2016;

Schmertmann et al., 2000; Chen, 2005; Smit, Van Gaalen, & Mulder., 2010; Efron & Liu, 2004),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동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사회경제적 특성도 동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은 나이가 어리고, 교육수준이 낮고(Hank, 2007; Smit, Van Gaalen, & Mulder., 2010), 비혼이며(Schmertmann et al., 2000; Smit, Van Gaalen, & Mulder., 2010),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Efron & Liu, 2004; Compton & Pollak, 2009), 장남이며(최희정·남보람, 2016), 자녀는 많고(최희정, 2016), 주택을 소유했을 때(김미영·이성우, 2009; Chen, 2005)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동거도 이들이 가진 사회경제적 자원의 교환에 의해 발생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특성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려고 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교환 관계는 한 세대가 다른 한 세대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로 발생하지만, 그 돌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지리적 근접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동거 시작과 근거리로의 주거 이동이 세대 간 돌봄의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3. 부모-자녀 동거 및 지리적 근접성

많은 노인들이 자녀들과 한 집에 살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 유럽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들의 약 50%가 자녀들로부터 25km 이내의 거리에 살고 있었고, 이는 자녀와 동거를 하는 비중(30%)보다 높은 수준이었다(Hank, 2007). 미국의 청년패널 자료(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97)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초기 성인기의 자녀와 어머니 간의 지리적 근접성 중간값(median)이 30마일(≒48km) 이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Gillespie & Treas, 2015). 한국에서는 자녀와 동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30% 정도가 자녀로부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살고 있었다(최희정, 2016).

가구 단위를 넘어서 발생하는 세대 간의 교환은 지리적으로 근접할수록

늘어난다(Compton & Pollak, 2015; Gillespie & Treas, 2015). 노인 부모와 자녀가 가까운 곳에 살수록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Bucx et al., 2008; Compton, & Pollak, 2015). 한 명 이상의 자녀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곳에 사는 노인은, 자녀로부터 먼 곳에 사는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이 양호하였고, 자녀와 대면접촉을 더 자주했다(최희정·민주홍, 2015; 최희정·빈보경, 2016; Treas & Gubernskaya, 2012).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모와 자녀의 지리적 근접성은 생애 후반의 세대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부모와 자녀의 동거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들의 지리적 근접성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최희정·남보람, 2016).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세대 간의 동거와 더불어 지리적 근접성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 4. 세대 간 돌봄과 주거 이동

앞에서 잠시 논의한 세대교환이론에 의하면, 세대 간의 동거 시작과 근거리로의 주거 이동은 중고령 부모나 성인 자녀 한 세대가 나머지 한 세대로부터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일어날 것이다.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고령 부모들이 자녀들과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동안의 연구들은 중고령 부모를 주로 돌봄수혜자로 간주하였다(Coleman & Ganong, 2008; Stuifbergen, Van Delden, & Dykstra, 2008). 그러나 성인 자녀가 출산을 하거나 어린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중고령 부모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세대 간의 교환이 발생할 수 있다(Friedman, Hechter, & Kreager, 2008). 특히 한국에서는 자녀가 신혼기나 출산을 전후로 중고령 부모에게 도움을 받고자 부모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Lee & Bauer, 2013). 하지만 얼마나 많은 성인 자녀들이 출산이나 어린 (손)자녀 양육을 위해 중고령 부모와 동거를 하거나 근거리로 이사를 하는지를 실증분석 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김주희, 200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부모가 가진 일생생활수행에서의 돌봄 필요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가 출산을 하고 (손)자녀 돌봄을 필요로 하여 동거를 시작하거나 근거리로 이사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대 간 동거와 지리적 근접성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한 시점에서의 횡단면자료를 활용하여, 부모 및 자녀의 특성과 동거·지리적 근접성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최희정·남보람, 2016; Schmertmann et al., 2000; Efron & Liu, 2004; Chen, 2005; Compton & Pollak, 2009; Smit, Van Gaalen, & Mulder., 2010). 새롭게 동거를 시작하거나 근거리로 이사하는 부모-자녀의 경우는 이전부터 줄곧 함께 살거나 근거리에 거주하였던 부모-자녀의 경우와 구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면 분석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이 고려되지 않았다(Bianchi, McGarry, & Seltzer, 2010). 횡단면 자료와 분석방법을 사용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역인과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다(Bianchi, McGarry, & Seltzer, 2010).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자료와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정주가 아닌 지리적 근접성 변화를 살펴보고, 역인과성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

이번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은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에 참여하고, 1차년에 동거하지 않았던 중고령 부모와 그들의 성인 자녀 15,118쌍(couple)이다. 만 45세 이상 중고령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고령화연구패널 조사는 2006년 1차년부터 2년 주기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대인면접(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으로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1차년도(2006년)에 동거하지 않았던 중고령 부모와 그들의 성인 자녀만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고, 1차년부터 2012년에 수집된 4차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4차년까지의 표본유지율은 원표본 중에서 사망으로 인한 이탈자를 포함했을 경우 80.1%로 양호한 수준이다.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에는 중고령 부모가 참여를 하였고, 자신의 정보과 더불어 자녀별 특성에 대한 응답을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중고령 부모와 그들의 자녀 각각을 일대일

대응구조(dyadic)로 만들어 분석하였기 때문에 부모 또는 자녀 개인이 분석 단위가 아니라 부모-자녀 한 가족(또는 쌍)이 분석단위가 된다.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 조사에 참여한 중고령 부모와 그들의 성인 자녀는 총 30,517쌍(couple)이었는데, 그 중에서 2차년도(2008년)부터 4차년도(2012)까지 중고령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자녀가 1차년에 미성년자였던 10,642쌍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다음으로 1차년에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료가 동거를 하고 있었던 4,757쌍은 2~4차년에 동거를 시작하거나 근거리로 주거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에 결측값이 있는 52쌍을 제외하였고, 총 15,118쌍의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가 최종적인 분석대상이다.

## 2. 변수설명

### 1) 종속변수

이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별로 두 개의 종속변수가 있다. 첫 번째 종속변수는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동거 시작이다. 지난 조사 이후 2년 사이에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가 동거를 시작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1차년에 이미 동거를 했던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는 2차년 이후 동거를 시작하거나 근거리로의 주거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두 번째 종속변수는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 근거리로의 주거 이동이다. 지난 마지막 조사 때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의 거리에 거주하던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가 이후 2년 사이에 30분 이내의 근거리로 주거를 이동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두 개의 종속변수 모두 2~4차년에 걸쳐 3번 측정되었다.

### 2) 독립변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Time-varying variable)인 성인 자녀의 (손)자녀 출생, 중고령 부모의 손자녀 돌봄, 일상생활수행능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본 연구의 독립변수이다. 첫째, (손)자녀 출생은 지난 조사 이후



2년 사이에 성인 자녀가 (중고령 부모에게는 손자녀)출산을 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둘째, 손자녀 돌봄은 지난 1년 간 중고령 부모가 (성인 자녀의 10세 미만 자녀인) 손자녀를 돌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셋째, 중고령 부모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은 (1)옷 갈아입기, (2)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3)목욕, 샤워하기, (4)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 (5)이부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6)화장실 이용하기, (7)대소변 흘리지 않고 보기의 7개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제한이 있는 수(범위: 0-7)이다. 넷째, 중고령 부모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1)몸단장하기, (2)청소와 정리정돈, (3)식사준비, (4)빨래하기, (5)교통수단 이용하지 않고 근거리 외출, (6)교통수단 이용하여 외출, (7)물건구매, (8)금전관리, (9)전화 걸고 받기, (10)정시에 정량의 약 챙겨먹기까지 10개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제한이 있는 수(범위: 0-10)이다. 중고령 부모의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 제한이 많아져 돌봄 필요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표 1〉 변수처리 설명

변 수	범 위	구 분
종속변수		
자녀와 동거시작		1=예, 0=아니오
자녀와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로 이사		1=예, 0=아니오
독립변수		
성인 자녀가 지난 2년 사이 (손)자녀 출산		1=예, 0=아니오
중년 부모가 지난 1년 간 손자녀 돌봄		1=예, 0=아니오
중년 부모의 일상생활수행능력	0-7	연속변수
중년 부모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0-10	연속변수
통제변수		
성인 자녀의 특성		
연령	20-80	연속변수
남성		1=남성, 0=여성
장남		1=장남, 0=장남 아님
학력		더미변수
초등학교 졸업		기준집단
중학교 졸업		

변 수	범 위	구 분
고등학교 졸업		
대학 이상		
경제활동		1=취업, 0=미취업
혼인지위		더미변수
결혼, 동거		기준집단
이혼, 별거		
사별		
비혼		
총 자녀수	0-7	연속변수
주택소유		1=자가, 0=자가 아님
중고령 부모의 특성		
연령	47-107	연속변수
남성		1=남성, 0=여성
학력		더미변수
초등학교 졸업		기준집단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이상		
경제활동		1=취업, 0=미취업
혼인지위		더미변수
결혼, 동거		기준집단
이혼, 별거, 비혼		
사별		
생존자녀수	1-10	연속변수
주택소유		1=자가, 0=자가 아님

### 3) 통제변수

세대 간 돌봄 필요와 지리적 근접성 변화와의 관련성은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혼인지위, 자녀수, 주택소유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Efron & Liu, 2004; Hank, 2007) 이러한 특성들을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첫째, 연령은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각각에 대하여 조사 당시의 만 나이 연속변수이다. 둘째, 성별은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각각에 대해 남성인 경우 1, 여성

인 경우 0으로 코딩되었다. 한국에서는 장남이 노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성인 자녀의 성별과 더불어 장남인지(=1) 아닌지도(=0)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셋째, 교육수준도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각각에 대해 초등학교 졸업 및 무학(기준집단),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이상의 네 집단으로 구분한 후,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넷째, 경제활동상태는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각각에 대해 취업한 경우 1, 미취업인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다섯째, 성인 자녀의 혼인지위는 결혼·동거, 이혼·별거, 사별, 비혼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 결혼·동거가 기준집단인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반면 중고령 부모의 혼인지위는 결혼·동거, 별거·이혼·비혼, 사별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결혼·동거가 기준집단인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여섯째, 자녀수는 성인 자녀(범위: 0-7)와 중고령 부모(범위: 1-10) 각각이 가진 살아 있는 총 자녀수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주택소유는 성인 자녀와 중고령 부모 각각에 대해 자가인 경우 1, 자가가 아닌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 3. 분석방법

세대적 돌봄 필요에 따른 지리적 근접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거 시작, 30분 이내 근거리로 주거 이동으로 종속변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모형을 분석하였다. 두 개의 모형이 종속변수는 다르지만,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모두 같다. 동거 시작에 관한 첫 번째 분석(표 3 참조)에서 1차년에 이미 동거를 했던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는 2차년 이후 동거를 시작하거나 근거리로의 주거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여기에 더해 30분 이내 근거리로 주거 이동에 관한 두 번째 분석(표 4 참조)에서는 1차년에 동거를 했던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30분 이내 근거리에 거주했던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분석에는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패널로지트회귀분석(pan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횡단면 로짓회귀모형에 비해 패널로지트회귀모형은 연구대상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을 통제할 수 있고, 두 시점 사이에 발생한 돌봄 필요를 독립변수로 하고, 지난 조사 이후에 달라진

거주지 변경을 종속변수로 하기 때문에 역인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정효과모형과 달리 확률효과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특성들의 추정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이번 연구에서의 통제변수에는 시간불변 변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 부모-자녀의 특성

세대 간 돌봄 필요가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의 지리적 근접성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연구대상 중고령 부모-성인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기술통계를 <표 2>를 통해 살펴보겠다.

<표 2>는 중고령 부모-성인 자녀 쌍의 2~4차년 측정 사례수 45,354개를 대상으로 한 기술통계 결과를 보여준다. 1차년에 동거하지 않았던 중고령 부모-성인 자녀 중에서 약 2.5%가 2~4차년에 동거를 시작하였고(2차년 3.8%, 3차년도 2.4%, 4차년도 1.3%), 동거 시작을 제외한 후 6.4%는 2~4차년에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의 근거리로 이사하였다(2차년 7.1%, 3차년 6.7%, 4차년 5.4%).

<표 2> 연구대상 부모-자녀의 특성 기술통계(2~4차년 측정 사례수=45,354)

변 수	비율/평균
종속변수	
자녀와 동거시작	2.5%
자녀와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로 이사	6.4%
독립변수	
성인 자녀가 지난 2년 사이 (손)자녀 출산	6.7%
중년 부모가 지난 1년 간 손자녀 돌봄	0.7%
중년 부모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	0.2개
중년 부모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	0.6개
통제변수	
성인 자녀의 특성	
연령	42.9세

변 수	비율/평균
남성	48.9%
장남	15.6%
학력	100.0%
초등학교 졸업	5.5%
중학교 졸업	7.7%
고등학교 졸업	38.3%
대학 이상	48.5%
경제활동	68.5%
혼인지위	100.0%
결혼, 동거	81.5%
이혼, 별거	2.9%
사별	0.8%
비혼	14.9%
총 자녀수	1.6명
주택소유: 자가	37.7%
중고령 부모의 특성	
연령	70.3세
남성	38.6%
학력	100.0%
초등학교 졸업	62.7%
중학교 졸업	15.3%
고등학교 졸업	16.0%
대학 이상	6.0%
경제활동	33.0%
혼인지위	100.0%
결혼, 동거	73.6%
이혼, 별거, 비혼	1.2%
사별	25.2%
생존자녀수	4.1명
주택소유: 자가	86.4%

2~4차년에 6.7% 정도의 성인 자녀가 (손)자녀를 출산하였다(2차년 7.8%, 3차년 7.5%, 4차년 4.9%). 1% 정도의 중고령 (조)부모가 2~4차년에 손자녀 돌봄을 제공하였다(2차년 1%, 3차년 0.6%, 4차년 0.5%).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균은 약 .19였고(2차년 .10, 3차년 .18, 4차년 .29),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균은 .63이었다(2차년 .46, 3차년 .61, 4차년 .82).

성인 자녀의 평균 연령은 43세인 반면, 중고령 부모 평균 연령은 70세였

다. 성인 자녀의 성비는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장남인 성인 자녀 비중은 약 16%였다. 중고령 부모는 여성(어머니) 비중이 61%로 남성(아버지) 39%에 비해 높았다. 중고령 부모의 성비에서 여성 비중이 높은 이유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의 평균 수명보다 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인 자녀의 학력은 약 절반이 대학 이상이었고(49%),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38%), 중학교 졸업(8%), 초등학교 졸업(6%) 순이었다. 그에 비해 중고령 부모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63%)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고등학교 졸업(16%), 중학교 졸업(15%), 대학 이상(6%) 순이었다.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성인 자녀는 약 69%인 것에 비해, 취업 중인 중고령 부모는 33%로 적었다. 대부분의 성인 자녀 혼인지위가 기혼(82%)이었고, 15%는 비혼, 3%는 이혼 및 별거, 1%는 사별이었다. 부모의 혼인지위는 이와 달리 3/4가 기혼, 나머지 1/4는 사별이었고, 1%만 별거, 이혼, 비혼이었다. 성인 자녀는 총 자녀수 평균은 약 1.6명으로 적었고, 중고령 부모의 생존자녀수 평균은 4.1명으로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성인 자녀의 약 38%만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에 비해, 중고령 부모의 86%가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세대 돌봄 필요에 따른 동거 시작

첫 번째 연구문제로 세대 돌봄 필요에 따른 동거 시작을 패널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의 분석 결과를 보면, 성인 자녀가 지난 2년 사이에 (손)자녀를 출산한 경우 중고령 부모와의 동거를 시작할 승산비가 65% 높아졌다( $O.R.=1.65$ ,  $p<.01$ ). 뿐만 아니라 중고령 부모가 지난 1년 사이에 손자녀 돌봄을 제공한 경우 돌봄을 받는 손자녀의 부모(중고령 부모에게는 성인 자녀)와 지난 2년 사이에 동거를 시작했을 승산비가 358% 높아졌다( $O.R.=4.58$ ,  $p<.001$ ). 또한 중고령 부모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성인 자녀와 동거를 시작할 승산비가 8%씩 높아졌다( $O.R.=1.08$ ,  $p<.01$ ). 그 외에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의 동거 시작은 성인자녀의 연령, 성별, 장남, 경제활동상태, 혼인지위와 중고령 부모의 교육수준, 혼인지위, 생존자녀수, 주택소유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 세대 돌봄 필요에 따른 동거 시작 패널로짓모형 분석 결과

변 수	동거 시작		
	Odds Ratio		S.E.
상수	0.027	***	0.012
성인 자녀의 특성			
연령	0.963	***	0.008
남성(기준: 여성)	1.209	*	0.091
장남(기준: 장남 아님)	1.394	***	0.126
교육수준(기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654		0.152
고등학교 졸업	0.928		0.173
대학 이상	0.979		0.190
취업(기준: 미취업)	0.656	***	0.045
혼인지위 (기준: 결혼, 동거)			
이혼, 별거	17.816	***	2.086
사별	9.173	***	2.454
비혼	8.701	***	1.162
총 자녀수	0.898		0.055
주택소유 자가(기준: 자가 아님)	1.142		0.111
중고령 부모의 특성			
연령	1.010		0.008
남성(기준: 여성)	0.869		0.069
학력(기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965		0.096
고등학교 졸업	1.277	**	0.118
대학 이상	1.072		0.141
경제활동 취업(기준: 미취업)	0.906		0.066
혼인지위(기준: 결혼, 동거)			
별거, 이혼, 비혼	0.505	*	0.147
사별	1.144		0.110
생존자녀수	0.934	*	0.027
주택소유 자가(기준: 자가 아님)	1.282	**	0.123
돌봄 필요			
성인 자녀가 지난 2년 사이 (손)자녀 출산	1.651	**	0.245
중고령 부모가 지난 1년 간 손자녀 돌봄	4.577	***	1.026
중고령 부모의 일상생활수행능력	0.906		0.049
중고령 부모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087	**	0.030
측정 사례수 (부모-자녀 사례수)	45,354 (15,118)		
Wald Chi <sup>2</sup> (df)	1675.92 (26) ***		
*p<.05, **p<.01, ***p<.001			

### 3. 세대 돌봄 필요에 따른 근거리로의 주거 이동

두 번째 연구문제로 세대 돌봄 필요에 따른 근거리로의 주거 이동을 패널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거리에 거주하던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가 지난 2년 사이에 30분 이내로 이사한 경우를 알아보기 때문에 〈표 3〉에서 지난 2년 사이에 동거를 시작한 3,303개 측정 사례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4〉 세대 돌봄 필요에 따른 근거리로의 주거 이동 패널로짓모형 분석 결과

변 수	근거리로 주거 이동		
	Odds Ratio		S.E.
상수	0.166	***	0.042
성인 자녀의 특성			
연령	0.995		0.005
남성(기준: 여성)	0.889	*	0.044
장남(기준: 장남 아님)	0.971		0.064
교육수준(기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800	*	0.086
고등학교 졸업	0.866		0.078
대학 이상	0.859		0.083
취업(기준: 미취업)	1.219	***	0.060
혼인지위 (기준: 결혼, 동거)			
이혼, 별거	1.439	**	0.159
사별	1.402		0.281
비혼	0.468	***	0.046
총 자녀수	1.030		0.029
주택소유 자가(기준: 자가 아님)	0.684	***	0.036
중고령 부모의 특성			
연령	1.000		0.005
남성(기준: 여성)	0.964		0.048
학력(기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0.988		0.059



변 수	근거리로 주거 이동	
	Odds Ratio	S.E.
고등학교 졸업	1.121	0.070
대학 이상	1.045	0.097
경제활동 취업(기준: 미취업)	0.794 ***	0.038
혼인지위(기준: 결혼, 동거)		
별거, 이혼, 비혼	1.155	0.193
사별	0.896 *	0.047
생존자녀수	0.948 **	0.015
주택소유 자가(기준: 자가 아님)	0.684 ***	0.036
돌봄 필요		
성인 자녀가 지난 2년 사이 (손)자녀 출산	1.388 ***	0.100
중고령 부모가 지난 1년 간 손자녀 돌봄	2.166 ***	0.356
중고령 부모의 일상생활수행능력	0.903 **	0.027
중고령 부모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059 ***	0.015
측정 사례수 (부모-자녀 사례수)	42,051 (14,017)	
Wald Chi <sup>2</sup> (df)	336.77 (26) ***	

\*p&lt;.05, \*\*p&lt;.01, \*\*\*p&lt;.001

〈표 4〉의 분석 결과를 보면, 성인 자녀가 지난 2년 사이에 (손)자녀를 출산한 경우 중고령 부모와 30분 이내 근거리로 주거를 이동할 승산비가 39% 높아졌다(O.R.=1.39,  $p<.001$ ). 중고령 부모가 지난 1년 간 손자녀를 돌본 경우, 돌봄을 받은 손자녀의 부모(중고령 부모에게는 성인 자녀)와 지난 2년 사이에 30분 이내 근거리로 주거를 이동할 승산비가 117% 높아졌다(O.R.=2.17,  $p<.001$ ). 또한 중고령 부모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하나씩 많아질수록 지난 2년 사이에 30분 이내 근거리로 이사할 승산비가 6%씩 높아졌다(O.R.=1.06,  $p<.001$ ). 이 외에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 근거리로의 주거 이동은 성인 자녀의 성별, 교육수준, 경제활동, 혼인지위, 주택소유와 중고령 부모의 경제활동, 사별, 생존자녀수, 주택소유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대한민국에서의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가 돌봄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동거를 시작하거나 근거리로 이사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중고령 부모는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성인 자녀와 동거를 시작하거나 근거리로 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보람·최희정, 2016). 즉, 중고령 부모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성인 자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최인희 외, 2016).

한편, 성인 자녀가 지난 2년 사이에 출산을 하거나 중고령 부모가 지난 1년 사이에 어린 손자녀를 돌봐주는 경우에도 동거를 시작하거나 근거리로 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에서의 중고령 부모는 성인 자녀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수혜자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성인 자녀와 어린 손자녀까지 도와주는 돌봄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최여진·이재림, 2014). 그리고 돌봄 제공자로서 중고령 부모의 역할은 가족 간의 구조적 결속도를 강화시켰다(Kim & Han, 2013).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자녀는 성인기가 된 이후에도 중고령 부모와 돌봄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진미정·성미애·변주수, 2014).

중고령 부모의 도구적 일상수행능력 제한이 늘어날수록 자녀와 인접한 곳으로 이사하는 경향과 반대로, 중고령 부모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이 늘어나면 동거 시작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 인접한 곳으로 이사하는 경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령 부모에게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몸단장, 청소와 정리정돈, 식사준비, 빨래하기, 교통수단 이용하지 않고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 이용하여 외출, 물건구매, 금전관리, 전화 걸고 받기, 정시에 정량의 약 챙겨먹기)에 제한이 생기면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부모의 일상생활수행능력(옷 갈아입기,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목욕, 샤워하기, 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흘리지 않고 보기) 제한까지 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신꽃시계·한경혜, 2011; 장경섭 외, 2015). 중고령자에게 일상

생활수행능력 제한이 생기면 배우자나 자녀가 돌보기도 하지만 재가나 시설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최인희 외, 2014; 최인희 외, 210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는 후속연구에서 심층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분석결과에서 흥미로운 발견은 대한민국의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가 상대방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 집에 살지 않더라도 근거리로 이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동거에 주목한 것에 비해 이들 간의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는데(최희정, 2016),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통해 생애 후반 대 안정적인 부모-자녀 간 주거 형태인 근거리 거주에 보다 관심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만의 필요를 고려하여 주거지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구에 살고 있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돌봄 필요에 의해서도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주거지를 선택하니 인구정책과 주거정책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의사결정 단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홍승아 외, 2015).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은 돌봄으로만 그 범위를 국한시키지 않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외연을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승미 외, 2012; 조희금 외, 2014).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에서의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는 세대 간 돌봄을 위해 거주지까지 이동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따로 살던 가족들에게 돌봄의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세대 간 돌봄을 호혜적인 상호작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가족정책과 복지정책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가족들, 특히 거의 여성들이 불가피하게 아동과 노인 돌봄의 책임과 역할을 떠맡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황혼육아와 노부모 부양은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를 객관적인 현상으로만 여긴다면 자칫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어머니, 딸, 며느리로서 돌봄을 전가 받고 있는 여성에게 앞으로도 부담을 떠넘길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에서 밝혀낸 현상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돌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회적 돌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의 근거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은 후속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이번 연구에서는 세대 간 돌봄제공자에 대한 젠더관점이 반영되어 않았다. 한국에서는 친정어머니(또는 시어머니)가 자녀(또는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돕고, (외)조모가 어린 손자녀를 돌보며, 아들(특히 장남)이 노부모와 동거를 하거나 인근에 살더라도 막상 (만)며느리가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세대 간 돌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돌봄을 제공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세대 간 돌봄 제공과 지리적 근접성의 관련성이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젠더관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세대 간 돌봄으로 인한 지리적 근접성의 변화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산후조리, 보육, 장기요양 등)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지만, 사회서비스 이용여부 및 거주지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정도가 이번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돌봄 지원이 세대 간 돌봄으로 인한 주거지 이동에 중재효과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결혼한 자녀는 중고령 부모와의 동거나 근거리로의 주거 이동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배우자와 함께 결정할 수 있지만(박소영, 2010), 본 연구에서는 성인 자녀의 배우자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 분석을 통해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와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의 총체적인 확대가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전세송·김수경·전귀연, 2012; 전세송·전귀연, 2014). 넷째,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동거 시작과 근거리로의 주거 이동은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지만, 부모와 자녀 세대 둘 중에서 어느 한 세대가 이사한 것인지 또는 두 세대 모두 제 3의 주거지로 이동을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중에서 누가 어디로 주거지를 이동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가 이러한 제한점들은 있지만, 돌봄 필요가 중고령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동거 시작을 비롯하여 지리적 근접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세대 간 돌봄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늘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차 가족 간의 구조적 결속도가 강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돌봄의 책임이 앞으로 가족에게 전가된다면 가족갈등이 야기되고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돌봄지원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본 고를 마무리한다.

## 참고문헌

- 김미영·이성우(2009). “노부모-자녀 동거의 결정요인과 지역간 차이, 1985-2005”. 농촌계획. 제15권 제4호. 89-107.
- 김주희(2009). “결혼초기 여성의 친족관계: 외동딸에 대한 사례연구”. 가족과 문화. 제21권 제4호. 95-118.
- 남보람·최희정(2016). “기혼자녀와의 거주근접성과 부모의 정신 및 신체건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4권 제6호. 69-85.
- 박소영(2010). “고부관계에서 남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8권. 151-186.
- 신꽃시계·한경혜(2011). “장기요양노인 가족수발자의 부양 실태에 관한 연구: 배우자 수발자와 자녀 수발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2권 제1호. 35-51.
- 이삼식·최효진·윤홍식(2015).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 출산행태 변화와 정책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승미·송혜림·이완정·성미애·진미정·이현아(2012). “한국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과 가족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0권 제6호. 183-199.
- 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림(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소득보장, 교육,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27권 제3호. 1-38.
- 전세송·김수경·전귀연(2012). “사위의 가족지향성이 장모 부양의식 및 부양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7권 4호. 137-152.
- 전세송·전귀연(2014). “장모가 지각한 장모-사위 관계만족도 연구”. 가족과 문화. 제26권 제1호. 152-177.
- 정경희·오영희·강은나·김재호·선우덕·오미애·이윤경·황남희·김경래·오신휘·박보마·신현구·이금률(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희금·김선마·이승미·성미애·진미정·이현아(2014). “중년기 기혼남녀의 100세 사회 가족생활 전망과 가족정책에의 함의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2권 제1호. 151-166.

- 진미정·성미애·변주수(2014). “50~60대 기혼 남녀의 노년기 가족생활 전망: 동거 가족, 돌봄자, 거주지 전망과 관련된 요인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2권 제1호. 27-41.
- 최여진·이재림(2014). “성인자녀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구적 지원 관련 요인: 지원에 대한 태도 및 지원 제공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2권 제5호. 87-105.
- 최인희·김영란·이아름·박신아(2014). 노년기 가족돌봄의 위기와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인희·홍승아·김주현·정다은(2014). 중년기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인희·송효진·지은숙·정다은(2016). 남성의 관점에서 본 노인 돌봄 경험과 역할전환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희정·민주홍(2015). “성인자녀-부모관계와 부모의 인지기능: 구조적·연계적 결속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3권 제4호. 105-118.
- 최희정·남보람(2016). “기혼자녀와 부모의 특성이 세대 간 거주근접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1권 제1호. 123-141.
- 최희정·빈보경(2016). “기혼자녀의 성과 출생순위가 부모와의 접촉과 경제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4권 제2호. 15-27.
- 최희정(2016). “기혼자녀와 부모의 거주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형제자매의 특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1권 제2호. 129-147.
- 홍승아·최진희·진미정·김수진(2015). 가족변화 대응 가족정책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engtson, V. L. (2001). Beyond the nuclear famil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multigenerational bo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16.  
doi: 10.1111/j.1741-3737.2001.00001.x
- Bianchi, S., McGarry, K., & Seltzer, J. (2010). *Geographic Dispersion and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Working Paper WP 2010-234.

- Bucx, F., Van Wel, F., Knijn, T., & Hagendoorn, L. (2008). Intergenerational contact and the life course status of young adul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1), 144-156. doi: 10.1111/j.1741-3737.2007.00467.x
- Chen, F. (2005). Residential patterns of parents and their married children in contemporary China: A life course approach.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4(2), 125-148. doi: 10.1007/s11113-004-6371-9
- Choi, N. G. (2003). Coresidence between unmarried aging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who moved in with whom and why? *Research on Aging*, 25(4), 384-404. doi: 10.1177/0164027503025004003
- Coleman, M., & Ganong, L. (2008). Normative beliefs about sharing housing with an older family membe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6(1), 49-72. doi: 10.2190/AG.66.1.c
- Compton, J., & Pollak, A. R. (2009). *Proximity and coresidence of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Description and correlates*. University of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WP 2009-215.
- Efron Pimentel, E., & Liu, J. (2004). Exploring nonnormative coresidence in urban China: Living with wives'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3), 821-836. doi: 10.1111/j.0022-2445.2004.00055.x
- Friedman, D., Hechter, M., & Kreager, D. (2008). A theory of the value of grandchildren. *Rationality and Society*, 20(1), 31-63. doi: 10.1177/1043463107085436
- Gillespie, B. J., & Treas, J. (2015). Adolescent Intergenerational Cohesiveness and Young Adult Proximity to Mothers. *Journal of Family Issues*, 0192513X15598548. doi: 10.1177/0192513X15598548
- Hank, K. (2007). Proximity and contacts between old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A European comparis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1), 157-173. doi: 10.1111/j.1741-3737.2006.00351.x
- Kahn, J. R., Goldscheider, F., & García-Manglano, J. (2013). Growing parental economic power in parent-adult child households: Coresidence and financial dependency in the United States, 1960-2010. *Demography*, 50(4), 1449-1475. doi: 10.1007/s13524-013-0196-2



- Kim, S., & Han, G. (2013). Three-generational support relationships in Korea and Japan: Development and explanation of a typolog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6), 45-68.
- Lee, J., & Bauer, J. W. (2013). Motivations for providing and utilizing child care by grandmothers in South Kore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2), 381-402. doi: 10.1111/jomf.12014
- Lsengard, B., & Szydlik, M. (2012). Living apart (or) together? Coresidence of elderly parents their adult children in Europe. *Research on Aging*, 34(4), 449-474. doi: 10.1177/0164027511428455
- Schmertmann, C. P., Boyd, M., Serow, W., & White, D. (2000). Elder-child co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from the 1990 Census. *Research on Aging*, 22(1), 23-42. doi: 10.1177/0164027500221002
- Smits, A., Van Gaalen, R. I., & Mulder, C. H. (2010). Parent-child coresidence: who moves in with whom and for whose nee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4), 1022-1033. doi: 10.1111/j.1741-3737.2010.00746.x
- Stuifbergen, M. C., Van Delden, J. J., & Dykstra, P. A. (2008). The implications of today's family structures for support giving to older parents. *Ageing and Society*, 28(03), 413-434. doi: <http://dx.doi.org/10.1017/S0144686X07006666>
- Treas, J., & Gubernskaya, Z. (2012). Farewell to moms? Maternal contact for seven countries in 1986 and 2001.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2), 297-311. doi: 10.1111/j.1741-3737.2012.00956.x
- van der Pers, M., Mulder, C. H., & Steverink, N. (2015). Geographic proximity of adult children and the well-being of older persons. *Research on Aging*, 37(5), 524-551. doi: 10.1177/0164027514545482
- White, M. J., Klein, M. D., & Martin, F. T. (2015). The rational choice and social exchange framework (Fourth edition). *Family theories*. (pp. 33-69). Thousand Oaks: SAGE Production.

## Abstract

# The Effect of Intergenerational Care Needs on Parent-Child Geographical Proximity

Jae-eon, Yoo\*

This study uses longitudinal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to examine whether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onset (question #1) and onset of living in closer proximity (question #2) are influenced by grandchild birth and parents' grandchild care, as well as potential needs of older parents to receive care in South Korea.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5,118 older parents aged 47 years old or over in 2008 (the mean age in 2008: 68 years old) and their adult children drawn from the KLoSA survey 2008-2012 (wave 2-4). I used panel logistic regression model analyse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mutual care needs such as grandchild birth, older parents' grandchild care,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limitations of older parent on coresidence onset and the onset of living within 30 minutes. Important findings in this study are that South Korean older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not only begin coresidence but also begin living in closer proximity when adult children give birth to own children and older parents take care of their grandchildren. Moreover, they begin coresidence and living in closer proximity when older parents have IADL limitations, even though severe ADL limitations of older parent hinder begin living in close proximity.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mutual support that older parents and adult children provide one another is growing, and it even strengthens intergenerational structural solidarity.

**Keywords :** family, migration, generation, residence, grandchild care, older adult care

---

\* Doctoral Candidate, Iowa State University